

이감국어 모의고사

01
SEASON 1

예비평가 지문분석



[4~9] 인문-과학 통합

생명관의 변화와 심장의 작동에 대한 실험

* 지문 평가

(가)에서는 생기론과 기계론을, (나)에서는 환원주의와 유기체론을 소개하는 통합 지문이다. 생리학 분야의 실험 과정을 다루는 (나)의 일부 문단들을 제외하면 정보량이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수월하게 읽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가) 인문 - 철학 - 생기론과 기계론

아리스토텔레스, 형상, 질료, 생기, 생기론, 기계론, 데카르트, 육체, 정신, 송과선

(나) 과학 - 생리학 - 환원주의와 유기체론

기계론, 환원주의, 이온 채널, 막전위, 분극, 탈분극, 칼륨 채널, 나트륨 채널, 칼슘 채널, 전산 생리학, 유기체론

* (가) 지문 분석

문단1 :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기론

1) 흔히 생물학의 기원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체를 형상과 질료, 생기의 3요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았다. 형상이란 생물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틀이고, 질료는 생물체를 이루는 물질적인 기초이다. 그리고 생기는 생명력 또는 활력을 의미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형상과 질료만으로는 생명을 지닌 개체가 탄생할 수 없다. 이처럼 생물과 무생물은 생기의 존재 여부로 구분된다고 보는 생명관을 생기론이라 한다.

⇒ 생명체의 구성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주어졌다. 이를 ‘생기론’으로 명명하고 있다는 바도 챙겨 두자.

[백락 짚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생기의 유무에 따라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였다. 이 둘을 의식적으로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생물	무생물
형상 + 질료 + 생기	형상 + 질료

2) 생기론은 중세를 거쳐 근세에 이르기까지 생물학을 지배해 왔다. 르네상스까지만 해도, 생물이 호흡을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충만해 있는 생기를 신선한 공기와 함께 몸속으로 받아들여서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 ‘생기론’은 근세[→ 르네상스]까지 생명체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에 해당했다.

[백락 짚기] 첫 문단을 읽을 때에는 의식적으로 글의 초점을 파악하려고 해야 한다. ‘생기론’의 효력이 근세까지 유효했다는 설명을 근거로, ‘생명체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그 이후에 등장하였음을, 그리고 이를 ‘생기론’의 관점과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글의 초점임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문단2 : 데카르트의 기계론

1) 생기론은 근대 과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16~17세기에 이르러 허물어졌다. 당시의 학자들은 생명 현상의 근원을 신비한 것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관찰과 실험을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여겼다. 이러

한 관점하에 등장한 생명관이 기계론이다.

⇒ 새로운 생명체의 이해[→ 생명관]로 ‘기계론’이 등장하였다. 이 관점의 성격을 대변하는 표현들로 ‘관찰, 실험, 객관적, 증명’ 정도는 챙겨 두자.

2) 기계론을 대표하는 데카르트는 생명체 역시 과학의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자동 기계[→ 무생물]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았다. 기계론에 입각한 생물학에서는 뼈의 작동이나 혈액의 순환 등을 역학적 원리로 설명하려 하였고, 그동안 답습해 오던 잘못된 지식을 인체 해부를 통해 바로 잡았다.

[백락 짚기] 의식적으로 앞서 다룬 ‘생기론’과 구분하여 이해하려 해야 한다. ‘생기론’에서는 ‘생기’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고자 하였다[문단1-1)]. 그런데 ‘기계론’에서는 이 둘을 사실상 같은 개념으로 놓고 있다. 애초에 생물에 어떤 신비하거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생기론	기계론
생물 ≠ 무생물	생물 = 무생물

3) 하지만 단순한 기계론은 정신 작용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 ⇒ 기계론의 한계점이다. 생명체의 ‘정신 작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애초에 생물과 무생물을 구분하지 않은 만큼, 당연한 한계점으로 보인다.

문단3 : 서로 다른 실체로서의 육체와 정신

1) 이에 대해 데카르트는 육체와 정신은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두 실체라고 설명하였다. 육체는 물질처럼 공간을 점유하는 속성인 연장성을 지닌 실체이며, 정신은 사유하는 속성을 지닌 실체라는 것이다. 이처럼 육체와 정신을 서로 다른 두 실체로 간주하면 육체의 움직임은 시계처럼 정밀하게 구성된 기계의 작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 ‘기계론’을 수용한 데카르트는 정신 작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신’과 ‘육체’를 별개의 실체로 구분하였다. 이 역시 구분해서 정리해 두어야 한다.

육체	정신
공간을 점유하는 ‘연장성’의 속성	‘사유’하는 속성

⇒ 육체는 기계론에 입각하여[→ 기계의 작동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정신 작용은 그럴 수 없다는 점이 한계점이었다[문단2-3)].

[주목] ‘데카르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신은 육체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실체이므로, 애초에 기계의 작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셈이다.

2) 데카르트는 정신 작용이 육체를 통제하는 통로로 ‘송과선’을 언급하였다. 송과선은 간뇌에 있는 솔방울 모양의 작은 기관이다. 이 기관은 오늘날 생체 리듬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으로 확인되었으나, 데카르트는 육체와 정신을 연결해 주는 특수한 부품으로 간주한 것이다.

⇒ ‘정신’과 ‘육체’는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닌 별개의 실체이지만, 이 둘이 완전히 별개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육체와 정신을 연결해 주는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데카르트는 이를 ‘송과선’으로 정의하였다.

⇒ 다만 오늘날에는 이것이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으로 밝혀졌으므로, 데카르트의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 (나) 지문 분석

문단1 : 환원주의

1) 데카르트의 **기계론**은 생명 현상도 물리·화학적 방법에 의해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생명체에만 적용되는 자연법칙은 있을 수 없다는 **환원주의**를 낳았다.

[맥락 짚기] 통합 지문을 독해할 때에는 (가)에서 이해한 내용을 능동적으로 (나)에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나)는 기계론의 영향을 받은 환원주의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가)의 기계론의 내용을 떠올리고 그것이 '환원주의'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2) 환원주의는 인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중시한다. 유전자로부터 단백질, 세포, 기관, 개체의 순으로 올라가는 체계에서, 아래에 있는 **하부 구조**에 의해 **상부 구조**의 작동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주목] 기계론은 생명체가 과학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일종의 기계라고 여겼다[(가)의 문단2-2)]. 이에 영향을 받은 환원주의도 인체를 기계라고 여겼으므로, 부품들에 의해 기계의 작동이 결정된듯이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의 작동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 하부 구조에서 상부 구조까지의 순서가 주어졌다. 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유전자 < 단백질 < 세포 < 기관 < 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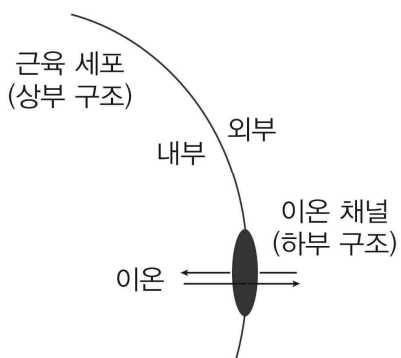
문단2 : 심장 박동의 과정

1) 환원주의에 따르면 심장 박동의 과정에서도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의 작동을 결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분명히 주어졌다. '환원주의'의 주장을 토대로 심장 박동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과정을 다룰 때에는 세부적인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파악하는 편이 좋다. 번호를 매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심장의 **근육 세포**→ 상부 구조 내부와 외부에는 칼륨, 나트륨, 칼슘이 이온 상태로 분포하고 있다. 이 이온들은 단백질→ 하부 구조의 일종인 **이온 채널**의 개폐 여부에 따라 세포막을 드나들고, 이를 통해 세포막 내부와 외부의 전위 차이인 **막전위**가 변한다.

⇒ 하부 구조인 '이온 채널'이 열리면 칼륨, 나트륨, 칼슘 이온이 상부 구조인 '근육 세포'의 안팎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면 이온 채널이 닫혀 있으면 이온의 이동은 차단된다.



[주목] 이렇게 하부 구조→ 이온 채널에 의해 상부 구조→ 근육 세포의 작동이 결정된다면, '환원주의'의 주장은 참이 된다.

3) 세포막의 **칼륨 채널**을 통해 칼륨이 세포 외부로 빠져나가면 막전위가 음의 값일 때는 **분극** 상태가 되면서 심장은 이완된다. 이때 칼륨 채널이 닫히면서 **나트륨 채널**이 열려 나트륨이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다량 유입되면 막전위가 양의 값으로 높아지는 **탈분극**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며, 이때 발생한 전기 신호로 인해 심장이 수축한다.

[맥락 짚기] 본격적으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주어졌으므로, 단계별로 구분해서 읽어 냈어야 한다.

⇒ 첫 번째 단계다. 열려 있는 '칼륨 채널'을 통해 칼륨이 근육 세포의 '외부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온이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막전위는 '음의 값'이 된다. 이를 가리켜 '분극'이라 하며, 이때 심장은 '이완'된다.

⇒ 두 번째 단계다. 열려 있던 칼륨 채널이 닫히고 '나트륨 채널'이 열리면 나트륨이 근육 세포의 '내부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온이 들어오면, 반대로 막전위는 '양의 값'이 된다. 이를 가리켜 '탈분극'이라 하며, 이때 심장은 '수축'된다.

- ❶ 이완 : 칼륨 채널 열림[→ 세포에서 이온 OUT], 분극[→ 막전위 (-)]
- ❷ 수축 : 칼륨 채널 닫힘, 나트륨 채널 열림[→ 세포로 이온 IN], 탈분극[→ 막전위 (+)]

4) 이후 나트륨 채널이 이내 닫히면서 막전위가 조금 낮아지지만, 곧 **칼슘 채널**이 열려 칼슘이 유입되기 때문에 여전히 탈분극이 유지된다.

⇒ 세 번째 단계다. 이어서 '칼슘 채널'이 열려 이온이 근육 세포의 '내부로 이동'한다. 따라서 여전히 막전위는 '양의 값'을 유지한다.

- ❶ 이완 : 칼륨 채널 열림[→ 세포에서 이온 OUT], 분극[→ 막전위 (-)]
- ❷ 수축 (1) : 칼륨 채널 닫힘, 나트륨 채널 열림[→ 세포로 이온 IN], 탈분극[→ 막전위 (+)]
- ❸ 수축 (2) : 나트륨 채널 닫힘, 칼슘 채널 열림[→ 세포로 이온 IN], 탈분극[→ 막전위 (+)]

5) 이후 칼슘 채널이 닫히고 칼륨 채널이 다시 열려 칼륨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심장은 이완된다.

⇒ 마지막 단계다. '칼륨 채널'이 다시 열리면서, 칼륨이 근육 세포의 '외부로 이동'하여 수축되었던 심장은 다시 이완된다. 다시 ❶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 ❶ 이완 : 칼륨 채널 열림[→ 세포에서 이온 OUT], 분극[→ 막전위 (-)]
- ❷ 수축 (1) : 칼륨 채널 닫힘, 나트륨 채널 열림[→ 세포로 이온 IN], 탈분극[→ 막전위 (+)]
- ❸ 수축 (2) : 나트륨 채널 닫힘, 칼슘 채널 열림[→ 세포로 이온 IN], 탈분극[→ 막전위 (+)]
- ❶' 이완 (2) : 칼슘 채널 닫힘, 칼륨 채널 열림[→ 세포에서 이온 OUT]

[주목] 다시 ❶에 도달하여, 반복되는 양상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겠다.

세포 내부 (세포막)	세포 외부	막전위	심장
❶ 칼륨 →		(-) 분극	이완
❷ ←	나트륨	(+) 탈분극	수축
❸ ←	칼슘	(+) ↓ 탈분극 유지	수축
❶' 칼륨 →		(-) 분극	이완

6) 이렇게 심장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이를 통해 하부 구조인 단백질의 작용이 상부 구조인 근육 세포의 운동을 결정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 심장의 수축과 이완은 ‘근육 세포’에 의해 이루어지고, 근육 세포 [→ 상부 구조]의 이러한 작동은 이온 채널[→ 하부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이는 ‘환원주의’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다[문단2-1)].

문단3 : 전산 생물학의 사례

1) 그런데 전산 생물학에 따르면 인체를 구성하는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와 상호 작용 하며 작동하는 사례가 발견되곤 한다. 전산 생물학에서는 다량으로 누적된 생물학적 정보들을 활용하여 컴퓨터로 기관을 모델링한 후 그 작동 원리를 살펴본다.

⇒ 그런데 ‘전산 생물학’에 따르면,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와 상호 작용’하기도 한다. 즉 ‘환원주의’의 관점에 반대되는 새로운 관점이 제기된 것이다[문단2-1)].

2) 실제로 인체의 심장을 모델링한 실험의 사례가 있었다. 이 실험에서는 상부 구조인 근육 세포가 하부 구조인 이온 채널에 세포 내의 전위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는 점을 가정했다.

⇒ 해당 실험의 가정대로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 주기적으로 신호를 전달한다면, 이는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게 된다.

3) 실험을 진행한 결과 근육 세포가 이온 채널을 향해 보내는 신호가 유지될 때 심장은 정상적으로 박동했다. 그러나 신호를 차단하자 근육 세포의 내부와 외부 간에 전위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 후에 이온 채널이 열리거나 닫히는 작동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 해당 실험에 따르면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 신호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단다.

[주목] 즉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에 영향을 끼치는[→ 이온 채널에 의해 심장 근육 세포의 막전위 변화] 동시에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에도 영향을 끼치는[→ 근육 세포가 이온 채널에 신호를 전달] 것이다. 즉 환원주의가 아닌, ‘전산 생물학’의 주장대로 ‘상호 작용’이 맞다는 결론이다.

문단4 : 유기체론의 등장

전산 생물학의 실험 사례는 생명 현상을 기계의 작동으로 간주하는 기계론에 허점이 있음을 뜻한다. 그 외에도 인체의 생리적 기능을 특정 기관만 떼어 놓고 설명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생물학에서는 복잡한 생명 현상을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유기체론이 힘을 얻고 있다.

⇒ 기계론의 오류가 밝혀짐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유기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마무리다.

⇒ ‘생기론 ⇨ 기계론 ⇨ 유기체론’의 순서를 기억해 두자.

* <보기> 분석

<보기> 문단

심장 근육 세포의 막전위를 시간 구간 A~C에 따라 측정한 결과가 표와 같았다. A~C의 변화 양상은 심장이 박동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시간 구간	A	B	C
심장 근육 세포의 막전위(mV)	-90 → 20	20 → 10	10 → -90

[백략 짚기] 앞서 파악한 ‘심장 박동의 과정’을 토대로 A~C 구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야 한다[(나)의 문단2].

세포 내부 (세포막)	세포 외부	막전위	심장
① 칼륨 →		(-) 분극	이완
② ← 나트륨		(+) 탈분극	수축
③ ← 칼슘		(+) ↓ 탈분극 유지	수축
①' 칼륨 →		(-) 분극	이완

⇒ A는 막전위가 음의 값에서 양의 값으로 변화한 시점이므로[→ 탈분극 상태] 이는 ②에 해당한다.

⇒ B는 막전위가 조금 낮아지지만 ‘탈분극’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③에 해당한다. 즉 여기까지가 심장 ‘수축’이다.

⇒ C는 다시 막전위가 음의 값으로 변화한 시점이므로[→ 분극 상태], 이는 심장이 ‘이완’되어 다시 ①이 된 상태를 가리킨다.

∴ C는 분극이 다시 나타나는 시점이다. 이때 ‘칼슘 채널’은 닫혀 있으므로, 칼슘의 이동은 멈춘다. 다만 ‘칼륨 채널’은 열려 있으므로 칼륨이 근육 세포의 외부로 빠져 나가게 된다. 따라서 ④번 선지는 적절하다.

법의 구성 요소로서 일차 규칙

* 지문 평가

‘일차 규칙’과 ‘이차 규칙’을 구분하면서, ‘이차 규칙’ 각각에 대해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는 매우 쉬운 글이다. 빠르게 읽어 낼 수 있도록 하자.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사회 - 법학 - 일차 규칙, 이차 규칙

하트, 일차 규칙, 이차 규칙, 법체계, 규칙, 승인 규칙, 민법 제1조, 변경 규칙, 헌법 제40조, 헌법 제49조, 재판 규칙, 헌법 제101조, 법원 조직법

* 지문 분석

문단1 : 일차 규칙과 이차 규칙

1) 영국의 법학자 **하트**는 법의 구성 요소로 ‘일차 규칙’과 ‘이차 규칙’을 제시하였다. **일차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행위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하는 규칙이고, **이차 규칙**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차 규칙들을 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칙이다. 이 두 가지 규칙의 결합으로 **법체계**가 완성된다는 것이 하트의 주장이다.

[맥락 짚기] ‘하트’는 법을 ‘일차 규칙’과 ‘이차 규칙’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첫 문단에서는 특히 글의 초점을 의식할 필요가 있는데, 두 규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글의 초점과 닿아 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일차 규칙	이차 규칙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행위와 관련된 의무를 부과함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에게 일차 규칙을 운용할 권한을 부여함

2) 이는 법을 일종의 명령으로 보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 **규칙**이라는 개념을 분석 도구로 끌어들이으로써 법의 다양한 기능을 설명하려는 시도였다. 하트는 법의 원시적 형태인 일차 규칙만 존재할 때 발생하는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승인 규칙’, ‘변경 규칙’, ‘재판 규칙’과 같은 이차 규칙들이 도입되었다고 본다.

[맥락 짚기] 이차 규칙을 세분화하여 ‘승인 규칙’, ‘변경 규칙’, ‘재판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각각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주목] 이때 ‘이차 규칙’의 역할은 일차 규칙의 결함을 보완하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승인 규칙’, ‘변경 규칙’, ‘재판 규칙’ 각각이 일차 규칙의 어떤 결함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문단2 : 승인 규칙

1) 법에 일차 규칙만 있다면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승인 규칙**은 특정 상황에 적용될 일차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칙이다.
⇒ ‘승인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승인 규칙	
결함	보완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가 발생	특정 상황에 적용될 일차 규칙의 기준 제시

2) 예를 들어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상식적인 이치, 즉 조리에 따른다고 규정함으로써 관습법이나 조리까지 포함하여 민사 영역에 적용되는 일차 규칙들의 기준과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맥락 짚기] 1)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애매한 경우’가 무엇이고, 승인 규칙에 의해 그것이 어떻게 보완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민사 영역에서는 ‘승인 규칙’인 민법 제1조에 의해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대로 일차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특정 상황에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지, ‘조리’를 적용해야 할지가 애매했을 것이다.

문단3 : 변경 규칙

1) 또한 의무의 규칙만 존재한다면 규칙을 수정할 수 없어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일차 규칙을 도입하거나 기존 일차 규칙을 폐지 내지 변경하는 권한에 관한 규칙이 필요하다. **변경 규칙**은 이러한 권한의 행사 주체 및 행사 절차를 규정한 규칙이다.

⇒ ‘승인 규칙’에 이어서 ‘변경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일차 규칙을 수정하기 위한 권한’에 대한 규칙으로 이해하면 된다.

변경 규칙	
결함	보완
규칙 수정이 불가능해 급격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함	일차 규칙을 수정하는 권한의 행사 주체 및 행사 절차를 규정

2) 예를 들어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제49조**는 재적 국회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국회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입법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40조에 비추어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 의해 제정되어야 함을 요건으로 한다. 이와 같이 변경 규칙은 승인 규칙이 한정하는 일차 규칙의 변경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맥락 짚기] 마찬가지로 1)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졌다. ⇒ ‘변경 규칙’인 헌법 제40조에 의해 입법권[→ 일차 규칙을 수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부여되며, 입법에 대한 행사 절차는 헌법 제49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문단4 : 재판 규칙

1) 그리고 의무의 규칙만으로는 의무 위반자에게 책임을 물어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재판 규칙**이다. 이 규칙은 일차 규칙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그 위반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에게 부여하고, 이 권한의 행사 절차를 규정한다.

⇒ 마지막으로 ‘재판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일차 규칙을 위반한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에게 부여하는 규칙으로 이해하면 된다[문단1-1)].

[맥락 짚기] ‘재판 규칙’이 일차 규칙만 존재할 때 발생하는 결함을 어떻게 보완하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재판 규칙	
결함	보완
의무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효율적인 절차가 보장되지 않음	의무 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권한 행사의 주체 및 절차 규정

2) 예를 들어 **헌법 제101조**는 재판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법원 조직법**의 조항들은 법관의 자격, 법원의 종류 등을 정의하고 있다.

[맥락 짚기] 이번에도 1)의 내용에 대한 예시가 주어졌는데,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란 ‘법관’을 가리키는 것이다.

문단5 : 승인 규칙이면서 재판 규칙인 경우

- 1) 승인 규칙에는 대개 권한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 법조문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권한을 법관이나 공무원에게 부여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일차 규칙의 위반 행위에 대해 법관이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승인 규칙은 재판 규칙이기도 하다.
 ⇒ ‘승인 규칙’은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문단2-1)], 실제로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다루고 있지 않다.
 ⇒ 다만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권한이 ‘법관이나 공무원’에게 부여된다고 본다. 따라서 법관이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하는지와 관련된 승인 규칙은 그 자체로 ‘재판 규칙’이라고 볼 수도 있다.
- 2) 또한 법조문에 ‘법률의 변경’이 언급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변경 규칙인 것은 아니다. 변경 규칙은 입법부의 법률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내용에 국한되며,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 적용될 일차 규칙을 지정하는 법조문은 승인 규칙이면서 재판 규칙에 해당한다.
 ⇒ ‘법률의 변경’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규칙’인 것은 아니라 세부 정보는 챙겨 두는 편이 좋다.
 ⇒ 또한 어떤 ‘승인 규칙’이 ‘법률의 변경’ 이후 적용될 일차 규칙을 규정한다면, 이 역시 ‘재판 규칙’이라고 볼 수도 있다.

* <보기> 분석

<보기> 문단

- 1)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고, ...
 [백락 짚기] 형법의 구체적인 법조문들이 언급되어 있으니, 이들 각각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글의 초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일차 규칙’일 가능성이 높지만, ‘일차 규칙’일 가능성도 일단 배제하지는 말아야 한다.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승인 규칙’에 해당한다[문단2-1)].
 ⇒ 더 나아가 ‘행위 시의 법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은 암묵적으로 법관에게 부여된다는 점에서 ‘재판 규칙’이라고도 볼 수 있다[문단5-1)].
- 2)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하고, ...
 ⇒ ‘법률의 변경’이 언급되었지만 ‘변경 규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입법부에 의한 법률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이다[문단5-2)].
 ⇒ 이는 법률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일차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 지정하는 것이므로, ‘승인 규칙’이면서 ‘재판 규칙’에 해당한다고 이해해야 한다[문단5-2)].
- 3) 제3항은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라고 함으로써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제3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판 확정 후 ‘법률이 변경된 상황’에서 적용될 일차 규칙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인 규칙’인 동시에 ‘재판 규칙’에 해당한다[문단5].

∴ 승인 규칙은 암묵적으로 특정 상황에 적용할 일차 규칙의 판단 권한을 법관에게 부여하므로, 형법 제1조 제3항은 법률이 변경된 상황에서 적용될 일차 규칙의 기준을 규정하는 승인 규칙이면서 재판 규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다.



[15~17] 예술

현대 예술에서의 추한 형상

* 지문 평가

예술 작품에서 나타나는 ‘추한 형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형적인 관점 위주의 지문이다. ‘고전주의, 낭만주의’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다시 ‘현대 예술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구분하여 이해하는 것이 관건이다.

* 키워드로 정리하는 지문 속 개념

예술 - 미학 - 현대 예술의 추한 형상

아름다움, 현대 예술, 고전주의, 낭만주의, 감각

* 지문 분석

문단1 : 화제 제시

사람들은 흔히 예술의 목적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통념과 달리 현대 예술에는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작품들이 많이 존재한다. 추상적이고 기괴한 이미지들이 난무하는 회화, 선율조차 없어서 소음처럼 들리는 음악이 즐비하다. 예술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역겹고 추한 작품들도 적지 않다.

⇒ 우리의 통념에 따르면 예술의 목적은 ‘아름다움’에 있다.

[맥락 짚기] 그런데 현대 예술에는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않는 작품들’이 많다. 이렇게 우리의 통념에 어긋나는 현대 예술의 양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글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문단2 : 낭만주의의 추한 형상

1) 추한 형상은 고대에서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줄곧 예술에 나타났지만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에 와서야 의식적으로 표현되었다.

⇒ ‘추한 형상’을 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표현한 것은] ‘19세기 낭만주의 예술’이 처음이었다.

[주목] 다만 이는 글의 초점인 ‘현대 예술’에 대한 설명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외형의 조화와 균형에서 미의 이상을 찾았던 고전주의와 달리, 낭만주의는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외형의 추함에 구애되지 않았다. 추한 외모 속에 감추어진 숭고한 사랑의 감정을 묘사한 빅토르 위고의 소설,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여인을 통해 강인한 인간 정신을 표현한 들라크루아의 그림 등은 이러한 낭만주의 예술의 본보기였다.

[맥락 짚기] ‘고전주의’는 아름다움을 외형에서 찾았다면, ‘낭만주의’는 아름다움을 내면[→ 숭고한 사랑의 감정, 강인한 인간 정신]에서 찾았다. 이 둘을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외형’의 아름다움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

3) 이들의 예술적 시도에는 진정한 미란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는 생각, 따라서 예술 작품이 감상자에게 불러일으키는 깊은 심정적 공명(共鳴)은 고전주의가 예술 창조의 규칙으로 삼았던 외형적인 비례와 대칭성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 낭만주의가 ‘추한 형상’을 활용한 것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고전주의가 중시한 외형의 조화와 균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문단3 : 현대 예술의 추한 형상

1) 현대 예술에 와서는 이러한 추함의 미학이 한층 심화되었다. 낭만주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여 감상자의 깊은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매개로 추한 형상을 끌어들이었지만, ……

[주목] ‘낭만주의’에서 추한 형상을 ‘의식적으로’ 활용한 이유가 주어졌다[문단2-1)].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비 효과를 노리고 외면을 추하게 표현했다는 것이다.

2) …… 현대 예술은 아름다움 자체와 단호하게 결별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맥락 짚기] 글의 초점에 부합하는 ‘현대 예술’이 추한 형상을 활용한 이유가 등장하는 대목이다. 집중하자.

⇒ 반면 ‘현대 예술’은 그 어떤 아름다움에도[→ 외면의 아름다움은 물론 내면의 아름다움에도]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추한 형상’을 활용하였단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좀 더 읽어 봐야 한다.

3) 껍질이 벗겨진 채 살이 그대로 드러난 정육점의 고깃덩이처럼 인간의 육체를 묘사한 그림, 방부 용액을 가득 채운 유리 상자 안에 동물의 사체를 넣어 둔 전시물 등이 버젓이 예술 작품으로 통용된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낭만주의의 경우처럼 어떤 일의적인 해석을 가할 수는 없다. 현대의 무수한 예술 작품은 낭만주의와 같은 하나의 예술 사조를 작품 창조의 기반으로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현대 예술의 ‘추한 형상’에는 일정한 경향이 없다. 즉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4) 실제로 현대 예술의 추한 형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미학적 관점에 따라 갖가지 해석이 주어졌다. 그중 대표적인 관점은 두 가지다.

[맥락 짚기] 글의 초점이 좁혀지는 대목이다. ‘현대 예술의 추한 형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두 관점을 설명하려나 보다. 당연히 두 관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단4 : 현대 예술의 추한 형상에 대한 해석 (1)

1) 하나는 세계에 대한 이성적 인식보다 자신의 신체 감각에 의한 파악을 우선시하는 예술가의 표현이 추한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관점이다.

⇒ 첫 번째 관점이다. ‘이성적 인식’이 아닌 ‘예술가 자신의 신체 감각에 의한 파악’의 결과라는 것인데, 이 둘이 어떻게 구분되지가 중요해 보인다.

2) 이는 ‘감각에 대한 이성의 우위’라는 서양 철학의 전통적인 위계를 전복하려는 충동이 현대 예술을 추동하는 기본 동력이라고 간주한다. 낭만주의 역시 이성보다는 감정을 앞세웠지만, 현대 예술은 감정보다도 더 천시되었던 감각을 복권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 서양 철학의 전통적 위계는 ‘이성 > 감정 > 감각’의 형태를 취한다. 즉 이성이 다른 것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목] 현대 예술에서는 ‘감각’이 오히려 이성보다 우선하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 인식’보다 예술가 자신의 ‘신체 감각’에 주목한 것이다.

3) 이에 따르면 감각은 외부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정신에 전달하는 생리 작용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성보다 선행하며 이성의 활동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체의 근원적 능력이다. 인간은 이 능력에 의해 신체와 외부 환경이 접하는 삼투막에서 이성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진동처럼 발생하는 어떤 사건을 감지한다.

⇒ ‘감각’에 대한 상술이다. 감각은 이성에 앞서는 생명체의 근원적 능력이다. 외부 환경에 대한 보다 직관적인, 직접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 예술가는 자신의 감각을 예민한 촉수처럼 활용하여 이 사건을 표현하는데, 그것이 추하게 보이는 까닭은 우리의 관습적인 미의식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는 아름다움을 판별하는 미의식도 이성^①에 의해 주도

된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 ‘관습적인 미의식’은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 따라서 ‘이성’에 앞서는 ‘감각’에 의한 결과물인 현대 예술은, 당연히 관습적인 미의식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는[→ ‘추한 형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맥락 짚기] 해당 관점에서 이해한 현대 예술을 ‘고전주의’, ‘낭만주의’ 예술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현대 예술
‘외형’의 아름다움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	‘감각’의 표현
아름다움 표현 ○		아름다움 표현 × [→ 아름다움은 ‘이성’의 결과물]

문단5 : 현대 예술의 추한 형상에 대한 해석 (2)

다른 하나는 예술의 추함을 세계의 추함을 고발하는 증언으로 해석하는 관점이다. 이는 예술의 목적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진실을 표현하는 데 있다고 보고 예술은 추한 형상을 표현하는 것에 의해서만 이러한 목적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인간 소외, 개인의 원자화, 환경 파괴와 같은 온갖 폐해가 엄존하는 현대 사회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은 거짓 환상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예술의 추한 형상은 세계는 아름답지 않다는 진실의 표명이자 이러한 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마비된 의식을 깨우치는 충격 효과의 수단이다.

⇒ 두 번째 관점이다. 애초에 ‘아름다움’이 아닌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 현대 예술의 목적이고, 실제 세계가 추하니까 예술의 형상도 추하다는 설명이다.

[맥락 짚기] 앞선 관점과 마찬가지로, 해당 관점에서 이해한 현대 예술을 ‘고전주의’, ‘낭만주의’ 예술과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주의	낭만주의	현대 예술
‘외형’의 아름다움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	‘진실’을 표현
아름다움 표현 ○		아름다움 표현 × [→ 세계가 아름답지 않기 때문]

[주목] 결국 현대 예술에 관한 두 관점을 구분하여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문단4의 관점	문단5의 관점
아름다움 표현 ×	
이성이 아닌 ‘감각’이 포착한 바를 표현하기 때문임	예술의 목적은 ‘진실’의 표현이기 때문임

* <보기> 분석

<보기> 문단

어느 날 몽크는 길을 걷다가 해가 지는 광경을 목격한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고 그는 극도의 피로를 느낀다. 그 순간 몽크는 불타오르는 구름이 검푸른 도회와 만(灣) 위에 핏물과 칼날처럼 떠 있는 환각에 사로잡힌다. 그는 불안감에 몸을 떠다. 그때 자연을 꿰뚫는 날카로운 외침이 들려온다. 그의 대표작인 『절규』는 이때의 체험을 표현한 작품이다. 세부가 지워진 추하고 기괴한 형상의 인물과 강렬한 색상으로 소용돌이처럼 묘사된 일그러진 주위 세계는 절망과 고립감에 빠진 인간이 외치는 날카로운 비명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맥락 짚기] ㉠[→ 세계에 대한 이성적 인식보다 자신의 신체 감각에 의한 파악을 우선시하는 예술가의 표현이 추한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관점], ㉡[→ 예술의 추함을 세계의 추함을 고발하는 증언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현대 예술을 설명하는 두 관점에 해당한다. <보기>의 ‘추한 형상’을 담고 있는 현대 예술을 두 관점에서 어떻게 달리 평가할지를 파악해야 한다[문단4, 5].

㉠	㉡
아름다움 표현 ×	
이성이 아닌 ‘감각’이 포착한 바를 표현하기 때문임	예술의 목적은 ‘진실’의 표현이기 때문임

∴ ㉠에 따르면 ‘감각’은 외부 현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생리 작용이 아니다[문단4-3)]. ㉠은 오히려 ‘감각’을 이성에 우선하는 생명체의 근원적인 능력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다.

* 수록 지문 평가

6.25 전쟁 당시 가족과 함께 피난을 떠난 작가의 체험을 형상화한 자전적 소설이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피난민들은 남의집살이를 하며 갖은 고초를 다 겪어야 했다. 가족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도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가장인 ‘나’의 심정을 떠올리며 작품을 읽어 보자.

* 수록 지문 분석

하루 아침 일어나 보니, 우리 아홉 살짜이 선아의 신발 한 짝이 온데간데 없었다[→ 주인공 가족에게 닥친 사건].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온 식구가 났을 뜰을 편답했다. 없었다. 누가 집어 갔다면 많은 신발 가운데 하필 그 애의 것만, 그것도 한 짝만 집어 갈 리 만무했다. 결국 이 댁 세퍼드[→ 주인공 가족이 의탁하고 있는 집주인의 개]란 놈이 어디 멀리 물어다 땡개쳤으리라는 결론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 어느 날 주인공 가족에게 닥친 사건이다. ‘이 댁 세퍼드’라는 표현으로 보아 주인공 가족이 남의 집에 의탁하고 있는 형편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없는 돈[→ 주인공 가족의 경제적 곤궁함]이나 겨울철에 맨발로 두는 수 없어, 아내가 거리에 나가 신발을 사 들고 돌아오더니 이런 말을 한다. 신발 한 짝 없어지는 건 흔히 자기 집에 앓는 식구가 있는 사람의 짓[→ 개가 아니라 사람을 의심]이라는 것이다. 앓는 사람의 나이와 같은 사람의 신발 한 짝을 가져다 어찌어찌하면, 그 앓는 사람의 병이 신발 주인에게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내는 이 댁에 우리의 선아만 한 애가 하나 며칠 전부터 무열로 앓아누웠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신발 한 짝이 없어진 거[→ 주인공 집 아이의 병을 선아에게 옮기려 한다는 의심]나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불안스럽고 노엽고 슬프기까지 한[→ 아이에 대한 걱정과 주인공 집에 대한 분노] 아내의 표정이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나 역시 아내에게 못지않게 불안스럽고도 무엇에 노여운 감정[→ 주인공 집에 대한 의심]이 가슴속에 움직임을 어찌할 수 없었다. 그게 아무 근거 없는 미신의 짓이라 하자, 그리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의 자식[→ 주인공의 자식인 선아]이라 하자, 자기네 애가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이다. 더욱이 우리의 선아는 네 애 중에 그 중 약한 애다. 이렇게 피난까지 나와[→ 주인공 가족이 처한 상황] 병이라도 들리면 구완할 길이 그야말로 막연한 것이다.

남몰래 불안스러운 며칠[→ 선아에게 병이 옮겨지기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이 지났다. 이 댁 애가 나아서 일어났다는 말이 들렸다. 그러고도 우리 선아는 앓아눕지 않았다. 역시 그때 그 신발 한 짝은 이 댁 세퍼드란 놈이 물어다 땡개친 것임에 틀림없다. 그처럼 날을 받아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노파[→ 종교를 가진 집주인]가 사는 이 댁에서, 그 같은 몰인정한 짓[→ 자신의 아이를 위해 남의 아이에게 병을 옮기는 일]이야 꿈엔들 할까 보냐.

⇒ 서술자인 ‘나’의 아내는 개가 아니라 주인공 사람이 선아에게 병을 옮기기 위해 선아의 신발 한 짝을 가져갔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나’는 그럴 리 없다고 말하면서도, 주인공 집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하고 노여워한다. 다행히 선아에게 병이 옮는 일은 생기지 않았지만, 이것만으로는 결국 신발을 가져간 게 누구인지 알 수 없다.

⇒ 제시된 정보들을 통해 주인공 가족이 처한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은 전쟁 중에 피난을 나와 다른 가족의 집에 의탁해 있으며, 신발을 사기도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다.

그리고 이삼일 뒤의 일이었다.

밖에서 들어오니, 아내가 어둡고 추운 방에 혼자 앉았다가 대뜸 근심스런 어조로, 좀 전에 이 댁 노파[→ 집주인]가 나와 이 방을 비워 달라더라고 한다. 이유는 이제 구공탄(= 난방에 쓰는 연탄의 일종)을 들이는데 이 방(실은

헛간)[→ 주인공 가족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사용해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로 아내가 이 댁 식모한테서 들은 말[→ 방을 비우라고 요구한 진짜 이유]은 이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다.

아까 낮에 예의 노파 한 패[→ 집주인의 지인들]가 몰려왔었는데, 그중 한 노파가 이쪽 뜰 구석 다복술 뒤에 감추인 거적뎃(= 짚을 두툼하게 엮어 만든 조각)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이런 때는 늘어서 눈 안 어둡는 것도 탈[→ 노파의 행동에 대한 불만]이었다. 그게 무엇인가 싶어 가까이 가 들여다 보고는 꽤 고개를 돌리며, 애 똤 똤! 대체 이런 데다 뒗간을 만들다니[→ 주인공 가족이 임시로 사용하는 변소] 될 말인가. 그 다음으로 이 댁 노파에게, 정원에다 그런 변소를 내다니 아우님도 환장을 했는지요? 여기서 주인공 노파도 한바탕, 거지 똤[→ 주인공 가족을 비하]란 할 수 없다느니, 사람이 사람 모양만 했다고 사람이냐고 사람의 행실을 해야 사람이 아니냐느니, 자기네 집이 피난민 수용소가 아닌 바에 당장 내보내고 말아야겠다는느니, 야단 법석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아내한테 나와 방을 비워 줘야겠다는 영을 내린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 노파가 우리한테 나와서는 거지다 뒗간을 만들었으니[→ 진짜 이유] 나가 달라는 말은 못 하고, 이제 구공탄을 들이게 됐으니[→ 민망해서 둘러댄 핑계] 방을 비워 줘야겠다고 한 것이었다. 실은 이 점이 이 노파로 하여금 자신이 말한 인간은 인간다운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보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반어적인 표현으로 노파를 비판]. 왜냐하면, 노파 자신이 우리들에게 안뜰 변소를 사용치 못하게 하고, 거기다 거적뎃을 치게끔 분부[→ 주인공 가족이 열악한 임시 변소를 사용한 이유]를 해 놓았으니, 진드기 아닌 우리가 오줌똥 안 눌 수는 없고, 실로 면목이 없는 행실이나 거기 대소변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잊지 않은 점에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들어 있는 곳이 실은 사람이 살 방이 아니라, 구공탄이나 들일 헛간[→ 최소한의 주거 환경조차 제공하지 않은 집주인의 비인간성]이라는 걸 밝혀 준 점에서.

⇒ 주인공 가족이 겪어야 했던 비정한 세태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다. 집주인 노파는 주인공 가족에게 열악한 임시 변소를 사용하도록 요구했으나, 정작 지인들에게 그 사실을 지적받자 민망함에 다른 핑계를 대면서 가족을 쫓아낸다.

⇒ 다른 인물들의 말을 주로 ‘~다는 것이다.’와 같이 간접 화법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자. 이는 서술의 초점을 서술자인 ‘나’에게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쯤 되어, 변호사 댁 헛간에서 쫓겨난 우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순원 가족 부대[→ 작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조적 표현]는 대구 시내를 전전하기 수삼 차, 드디어 삼월 하순께는 부산으로 흘러내려 오게까지 되었다.

⇒ ‘황순원’은 작가의 이름이므로 이 소설이 작가의 자전적 소설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초라하기 짝이 없는 황순원 가족 부대’라는 표현은 당시의 비참한 상황에 대한 작가의 자조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부산에서 ‘나’의 가족은 또 다른 변호사 집에서 지내지만, 당장 나가라는 요구를 매일 받는다. 거처할 곳을 수소문하다 실패하고 온 어느 날, ‘나’는 방이 어둡한 것을 본다.

방에 들어가 알아보니, 전등은 고장인지 고의인지 저녁부터 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 댁 전등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오는 특수선으로, 물론 지금도 다른 방엔 모두 환하게 들어와 있었다[→ 집주인의 고의임을 암시]. 잠시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말이 없었다.

애들 이모가 혼잣말처럼 내일은 어느 다리 밑으로라도 나가고 말아야겠다[→ 이런 집에 머무르니 길에 나앉는 편이 낫다는 판단]고 한다. 이모의 말이, 여태껏도 그래 왔지만 오늘은 이 집에서 더 어린것들을 못살게 굴더라[→ 주인공 가족을 내쫓기 위한 의도적 괴롭힘]는 것이다. 이모네 일곱 살 짜리 큰놈과 우리의 여섯 살짜리 끝놈이 어찌다 노래를 부른다든가, 변소에라도 가려 복도로 나가면 시끄럽다고 꽤 소리를 지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자기네 일곱 살짜리가 여봐란듯이 보무당당히 복도를 행진하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를 할 때, 이쪽 애들이 따라만 해도 다시 고함 소리가 연발되더라는 것이다. 그보다도 더 보기에 안된 것은 우리 선아가 역시 계집애는 달라, 동생 애들이 주인한테 꾸지람 듣는 게 보기에 안된 듯, 조금만 애들이 소리를 내도 안타까워하는 모양[→ 선아가 동생들을 아끼는 마음]이 차마 옆에서 볼 수 없더라는 것이다.

⇒ 집주인이 주인공 가족을 쫓아내기 위해 벌이는 행위들이 열거되고 있다. 이모가 유독 분노하는 이유는, 어른도 견디기 힘든 괴롭힘을 힘없는 아이들이 겪어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이 역시 주인공 가족이 겪어야 했던 비정한 세태를 잘 보여 준다.

애들 이모가 어둠 속에서 소리를 죽여 가며 운다. 내 가슴속도 화끈 불이 붙는 걸[→ 주인공의 강한 분노] 느낀다. 그건 대구서 선아의 고무신 한 짝을 잃었을 때에 느꼈던 분노와는 또 달랐다. 그러나 그들이 여하한 전술을 바꿔 가지고 나오더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참는 수밖에 없다[→ 피난민이라는 열악한 처지를 자각]. 그저 그 전술을 최대한 피할 도리를 강구하면서.

⇒ 주인공은 한 인간이자 가족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전과 달리 강하게 분노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를 집주인에게 표출하지는 않는데, 그랬다가는 가족들 모두가 순식간에 거처를 잃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피난민이라는 열악한 처지에 대한 주인공의 자각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감

[31~34] 현대시

(가) 김종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작품 평가

단순한 내용으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하지만 새겨볼수록 시의 여운은 짧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작품 분석

누군가 나[→ 화자]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도치]

⇒ 시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 드러나 있다. 짧고 간단한 질문이지만, 시인에게서는 시와 시인의 본질과 존재 의미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나는 시인이 못 되므로[→ 성찰적인 태도]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 시를 쓰고는 있지만 참다운 시인은 아니라는 대답으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가치 있는 시를 쓰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화자가 시의 가치와 시인의 사명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 화자는 ‘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렇게 여러 곳을 헤매고 다녔던 것 같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 ‘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나고 있었다’라고 답하고 있다. 화자는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 깨달음의 순간을 묘사하고 그 특별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생각났다’가 아니라 ‘생각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생각나고 있었다’의 목적어는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 되어도 ~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다. 도치법과 반복법을 활용해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하도록 하여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서 이런 생각이 난 것을 보면, 아마 시장 사람들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밝고 인정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봐도 좋겠다.

이 세상에서 알파[→ 세상의 처음, 근본이 되는 존재, 중요한 존재]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 언제나 세상을 밝혀 주는 존재]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순하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시인이라고 했으니, 그들의 평범한 삶이 곧 시라는 의미이다. 시의 처음에 등장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

⇒ ‘시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화자의 결론을 짐작할 수 있다. 고생스러우면서도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는 시가 진정한 시이고, 그런 시를 쓰는 사람이 참된 시인이라고 화자는 생각하는 것이다.

이감